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여성농업인과 상생협력...ESG 실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박진성 | 등록 2026.08.22 04:46

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 하반기 회의 공간·편의시설 지원
농지 전수조사 설명부터 농지은행사업 주요 제도까지 맞춤형 안내
지역 농업인 단체와 소통 강화...현장 애로사항 반영·제도개선 추진



농지은행사업 홍보 편성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지역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김기진)는 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회장 김재중)의 하반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 중회의실을 제공하고 관련 편의시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농업인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사는 단순한 회의 장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 관련 제도와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 이후 농업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농지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역할과 주요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영농 여건과 생애주기 등에 맞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사는 현장에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이번 만남은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살펴보는 소통의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사가 보유한 시설과 농업 관련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진 지사장은 “지역 농업인 단체와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의 제도 개선과 관련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